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 경증 치매노인 포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9월 18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노인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 악화 예방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돼 줄 치매단기상담과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아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신체 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이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에서는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거실 등 가정과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과 치매안심형 입소 시설(현재 22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경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

하는 등 관련 수기도 개선할 예정이다.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확대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치매 진단검사인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전국 350여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가 보다 정밀화되며, 검사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휴게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치매안심마을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연구개발(R&D)=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달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정책을 부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고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nurse.or.kr

드라마 병원선 "간호사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작사에서 간호협회에 사과공문 보내와

MBC(문화방송) 수목드라마 '병원선' 외주제작사인 (주)팬엔터테인먼트에서 전국의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간호협회에 9월 7일 보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선'이 지난 8월 30일 첫 방영된 후 'KNA 대학생 활동가'와 함께 모니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간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과 실제 간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드라마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MBC 및 외주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에 보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대한간호협

회에 보내온 공식 사과공문을 통해 "성정해 나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의사, 간호사가 되어간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고증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제작된 분량 이후부터는 내용을 바로 잡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권 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책임감 있는 간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역량강화교육

간호사를 위한 감성터치 :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간호역량강화교육 '간호사를 위한 감성터치: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명	간호사를 위한 감성터치 :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
강사	손철주(미술평론가)
일시	2017. 10. 18. (수) 14:00~16:00
신청기간	2017. 9. 20. (수) ~ 10. 10. (화)
교육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교육인원	130명(선착순 마감)
교육대상	등록회원
교육비	없음

*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 교육 → 오프라인 무료교육 '옛 그림에 담긴 사람의 마음' 검색 → 신청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연내 마련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고용 안전성 강화

더욱 촘촘한 결핵관리를 위해 민간·공공협력(PPM) 의료기관 지정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이 올해 말 수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9월 18일 개최했다.

정부는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추가했다.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 수준인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로 결핵부담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고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아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제2기 종합계획(안)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비전 아래 '결핵발생률 2022년까지 절반수준 달성(2015년 대비)'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결핵퇴치 정책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결핵안심국가와 연계·강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내실화에 주력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 및 신환자 발생 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확대에 따라 PPM 의료기관 지정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정규화 등 고용 안전성을 확보해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결핵 접촉자 조사 확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법·제도 개선' 등을 강화하고,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 '의료인 등 전문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주혜진 기자 hjoo@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제7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가 '건강한 아세안을 위한 협력(Together Toward a Healthy ASEAN)' 주제로 9월 7일 브루나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지역협의체다. 2004년 이래 2~3년 주기로 열리며 아세안 지역의 보건의료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함께 제6차 회의 공동의장국을 지낸 바 있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회의에서 생애주기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연령·성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 건강검진체계를 공유했다.

주혜진 기자 hjoo@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8년 연속 1 위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푸르덴셜생명이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에서 8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좋은 생명보험사'는 23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푸르덴셜생명은 안정성,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푸르덴셜생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